

한라포커스 2년차 코로나 시국... 제주교육에 무엇을 남겼나

학력격차 해소 핵심과제로...

제주도교육청, 1년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백서 발간
원격수업 한계 보완·학급별 인원 축소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코로나19로 '처음 가는 길'을 걸어왔던 교육현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4월 온라인 개학, 5월 등교 개학, 12월 대학수능능력시험 등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 속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정서·사회성 등의 결손 우려가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유의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과정을 담은 '제주교육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 담긴 그간의 흔적을 간략히 살피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혼란의 교육현장**=도내 첫 학교 관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이후 10월을 제외하고 매달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을 긴장시켰다. 올해 5월까지 누적 118명(학생 104명, 교직원 14명)이었던 확진자는 지난 8월에만 191명(학생 180명, 교직원 11명)이 신규 발생해 지난 7일(오후 5시 기준) 누적 375명(학생 342명, 교직원 33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방학기간 감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 학사일정이 파행을 빚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일시 중단되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다. 등교·원격수업의 반복 등 원격수업 장기화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 교육관계 단절로 사회적 저하 우려, 학습 격차로 인한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부실해지자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초등 긴급돌봄 확대, 태블릿PC 등 대여,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등을 비롯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통해 학교 내 집단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교육회복·미래교육준비 고민 필요**=백서는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대응기구의 능력과 역할 제고 ▷학교 미등교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해결 ▷학교 공간혁신과 학급별 인원 축소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교육계는 학교밀집도 완화 등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2년째, 교육회복과 함께 미래교육 준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상황에 제주교육당국이 어떤 대응·보완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른기사자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제주여행 기념 '찰칵' 8일 서귀포시 표선면 보름빛을 찾은 관광객들이 맨드라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이상국기자

대범해지는 보이스포싱 사기

계좌이체형→직접 만나 돈 받는 대면편취형으로

경찰 "청년층 고액알바 유혹받아 수거책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수법이 대거 바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포싱 범죄는 피해자가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뀌고 있다. 대면편취형은 피해자가 특정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현금을 찾아가 일당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이스포싱 범죄 집중단속 운영기간을 통해 41명의 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잡기 위해 기존 수사과 외 형사과도 집중 투입하는 등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성기자 kwms6510@ihalla.com](mailto:kwms6510@ihalla.com)

과거 보이스포싱 주요 수법으로 사용되던 '계좌이체형' 범죄는 ▷2019년 479건 ▷2020년 210건 ▷올해 8월까지 104건으로 집계되며 크게 줄어들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포싱엔 경제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이 '고액 알바' 유혹에 수거책으로 동원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들이 특정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현금을 찾아가 일당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이스포싱 범죄 집중단속 운영기간을 통해 41명의 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잡기 위해 기존 수사과 외 형사과도 집중 투입하는 등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성기자 kwms6510@ihalla.com](mailto:kwms6510@ihalla.com)

또 가을 재촉 비

기상청 "무더위 꺾일 듯"

모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진 제주에 내일 비가 또 내리겠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새벽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비가 내리겠다. 비는 10일 오후에 그쳤다가 다음날 오전 동안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비소식으로 무더위의 기세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7~28℃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비가 내리는 10일 낮 최고기온은 26~27℃로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일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또 9일까지 천문조에 의한 물결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은병기자 sonbong@ihalla.com](mailto:sonbong@ihalla.com)

"누가 안 보겠지?"... 쓰레기 투기 '눈살'

골목길·건물 사이 공간
담배꽂초·음료 캔 가득
클린하우스 주변도 범범
"나 하나쯤 생각 버려야"



골목길에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왼쪽)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건물 공간. 강민성기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 비양심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8일 제주시내 곳곳에선 쓰레기가 무단투기돼 있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도시락 용기, 음료 캔, 커피 플라스틱 컵 등 종류가 다양했으며 오래 방치됐는지 악취는 물론, 해충까지 꼬이고 있었다. 주차를 마친 주민들이 차량 문을 열고 나오면서 쓰레기가 발에 채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건물과 건물 사이 빈 공간에도 담배꽂초, 소주병 등 비닐에 담긴 생활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보다 앞선 7일 제주시 연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도 지정된 통이 아닌 인접한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놓고 가는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안모씨(34)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 행위로 화가 난다"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로 주변을 점검하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

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선 구획별로 나눠 인력을 파견해 골목길 등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 노인·장애인 일자리의 일환으로 600여명의 분리수거 도우미를 채용해 쓰레기 배출을 돕고 있다.

하지만 시선이 잘 가지 않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성기자 kwms6510@ihalla.com](mailto:kwms6510@ihalla.com)

"플라스틱없이 살수 있을까" 환경단체 캠페인 참가 모집

제주지역 환경단체 '작은 것이 아름답다(JAGA)'(대표 이경아)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 살기 91지구' 캠페인에 참여할 챌린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9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

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페이스북(지구별약수터)에 매일 올라가는 대표 게시물에 댓글로 자신의 도전 결과를 남기면 된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친환경 생활용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되거나 챌린저의 이름으로 매일 500원씩 기부가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http://bit.ly/3BtJK06'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구별약수터 계정을 통해 확인, 문의가 가능하다. [송은병기자 sonbong@ihalla.com](mailto:sonbo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지원대상**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 우대)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신청방법 및 지급수단**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신청 등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오프라인) 은행창구 방문
 -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 (온라인) 도 홈페이지, 탐나는전 홈페이지·앱(모바일·카드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21. 9. 6.(월) ~ 10. 29.(금),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날 충전하고 문자 통보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원금 사용** : 제주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지원금 사용 기한** : '21.12.31.(금)까지
- **이의신청** : '21.9.6.(월) ~ '21.11.12.(금)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요일제 시행** :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이의신청(요일제는 시행 첫 주만 적용)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온라인 경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 (조회기간) '21. 9. 6.(월) ~ '21. 10. 29.(금)
- ※ 온라인 조회 첫 주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조회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 (서비스내용)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사용기한 등 조회